



언론보도 스크랩

2014. 9. 5. (금)

15면 지역종합

대한민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다

담당부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고객지원부

담당자 담당 신호진 (054-730-8556)

총 1쪽 ■www.nymc.or.kr

영덕사랑 우리도 동참 실천한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영덕 창포항 정화활동시간 가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민과 협력하는 봉사활동 펼쳐



▲ 지역민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위), 스쿠버장비 세팅(아래 왼쪽), 항 주변 어구 정리(아래 오른쪽)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이하 해양센터)가 지난 1일, 소중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영덕의 창포항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양센터가 소재한 창포항에서 수중 정화 및 어구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총 소요시간은 4시간이었으며, 수중 정화 작업을 위해 스쿠버장비 5대가 투입되었고 전문성을 갖춘 해양센터 인력이 성실히 공헌활동에 임했다.

특히 지역주민들과 협업하여 창포항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이번 활동에는 해양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창포리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 마을주민 등 22명이 참여하여 해양센터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민과 화합하여 해양환경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해양센터측은 말했다.

해양센터 유희룡 원장은 “이번 창포항 정화활동은 단순한 지역친화적 사회공헌을 넘어 정부 3.0의 기본 기조인 소통·개방·협력을 실천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대수준과 공공부문 대응능력의 격차를 줄여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밝히고 싶다”라고 전했다.

